

韓中 FTA 체결 시동 전남 농업 막막하다

값싼 중국산 범람에 치명타 우려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전남의 농업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 공산품은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농업분야에선 가뜩이나 저렴한 중국산 농산물이 아예 무관세로 한국시장에 들어올 경우 전남 농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에 서명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FTA 체결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 통상장관이 협력비전 보고서에 서명한 것은 양국의 무역액이 1천5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경제교류가 활발하고, 교역 및 투자 역

시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협력 증진의 지침서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외교부는 판단하고 있다.

양국은 우선 2천15년까지 교역규모를 현재의 2배인 3천억 달러에 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기술집약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 시장개방폭을 확대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한·중 FTA 검토 및 지역·다자 경제협력에 공동참여를 합의했다. 또 정보통신, 금융, 유통, 물류, 첨단기술,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농업, 자동차, 조선업 등 23개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한·중 FTA는 그러나 체결될 경우 파급력이 워낙 크다. 특히 값싼 중

국산 농산물이 무관세 혜택을 등에 업고 한국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전체 인구의 30%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남을 비롯한 한국의 농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한·중 FTA 체결시 200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7조9천억 원, 수출이 65억 달러, 수입이 142억 달러씩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수입급증으로 무역흑자는 76억 달러가 감소하고, 중국의 저가 농산물 때문에 농산물 적자는 123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국은 최근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차이완' 효과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의 FTA체결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농도는 전남으로서 FTA체결로 저가 중국산 농산물이 범람할 경우 지역 농업의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13 대 133 위대한 승리 재현

133척의 왜군 함선이 13척의 조선 관옥선에 쫓겨 급히 뱃머리를 돌려 퇴각하는 모습이 11일 명량대첩축제에서 재현되고 있다. 412년전의 명량해전을 재현한 '2009 명량대첩축제'가 이날 32만 명의 관광객 물결을 하며 3일 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관련기사·화보 3면

133척의 왜군 함선이 13척의 조선 관옥선에 쫓겨 급히 뱃머리를 돌려 퇴각하는 모습이 11일 명량대첩축제에서 재현되고 있다. 412년전의 명량해전을 재현한 '2009 명량대첩축제'가 이날 32만 명의 관광객 물결을 하며 3일 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관련기사·화보 3면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경제 유발효과 1천억원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총지출(투자지출+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천71억8천8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비엔날레의 시설 및 전시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226억4천200만원, 관람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효과 845억4천600만원, 고용유발 효과는 2천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005년 제1회 행사(17일간)의 관람객수 28만8천513명과 2007년 2회 행사(30일간)의 관람객수 25만1천220명을 근거로 3회 행사(48일간) 기간 중 광주시로 유입될 국내외 관람객수 32만1천543명(무료포함)으로 예측하여 추정된 것이다.

부문별로는 생산유발 효과가 451억5천400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359억4천800만원, 소득유발 효과가 260억8천600만원 등이었다.

생산유발 효과는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이 85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보관업 74억2천만원, 음식 및 숙박업 73억원, 공공행정 30억2천만원,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이 27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운수 및 보관업이 65억8천만원, 음식 및 숙박업 64억6천만원,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 51억원,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24억3천만원 순이었다.

소득유발 효과는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이 60억1천만원, 운수 및 보관업 48억원, 음식 및 숙박업 46억1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비엔날레 개최로 광주는 지역 문화와 디자인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디자인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간접 파급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오광록기자 kroh@

시군 자율통합 이달중 여론조사

오늘 광양만권, 14일 무안반도 주민 공청회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위한 지역 여론 수렴작업이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건의한 광양만권과 무안반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2일과 14일 각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권역별로 나눠 실시되며 여수·순천·광양·구례 등 광양만권은 12일 오후 3시 순천시청 별관회의실에서, 그리고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 지역은 14일 오후 2시 도청 옆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참가대상은 시·군별로 50명 이내이며 광양만권 200명, 그리고 무안반

도 150명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방행정국장과 자치제도기획관 등이 참석한다. 토론의 사회자는 이견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맡게 되며, 토론자는 자치단체별로 1~2명씩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는 행안부가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찬반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해 건전한 통합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지역공청회가 마무리되면 10월 중·하순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12월 초 전국 동시 주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군통합 작업 과정에서 찬반의견이 갈린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09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일시: 2009. 10. 18(수) 09:30

장소: 오도운동장

문의: 062-224-1461, 062-232-6897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THE CLUE

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 소재원으로부터의 영감

자연스러운 비움의 미학

16세기 한국의 정원 소재원은 '움'의 공간이다. 디자인 그룹 오피스디. 에이가 소재원을 모티브로 '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대숲, 계곡과 조화를 이룬 소재원을 자연스러운 목재소재로 형상화했다.

완만한 곡선이 주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편안하게 하며 3분의 2정도 여백을 두어 비움의 미학을 살렸다. 이 틀사이로 햇살과 바람이 불어온 듯하다.

시원한 맛바람 속 보금자리에 몸을 누이고 한숨 쉬고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비엔날레전시관 2전시실 '집' (주) 썩선에 출품됐다. /오광록기자 kroh@